

이달의 초점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주요 현황과 특화사례 분석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현황 및 성과

| 김희성·김진화·이주민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사례를 중심으로

| 홍재봉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사례를 중심으로

| 주은수 |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 사례를 중심으로

| 임태영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1기 사업 분석: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사례를 중심으로¹⁾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Community-Led Multi-Functional Shared Spaces

홍재봉 부산생명의전화 원장

거주 공간은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열악한 거주 환경은 때로 주민 간 교류를 저해하고 관계를 단절시킨다. 슬럼화된 지역에 사는 곳에 대한 부끄러움도 가지고 있고, 그곳을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존재했다. 이에 주민들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복합공유공간을 만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 시행되었다. 그 공간은 마을 자산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물리적인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유튜브와 같은 가상의 공간, 그리고 주민이 생활하는 야외공간까지 그 개념을 확장하였다. 복합공유공간은 고립된 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관 및 자원의 연계, 주민 간 교류와 관계형성, 배움, 자립을 위한 활동의 공간으로 활발하게 운영되었다. 그러나 지역의 자체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한계는 여전히 남아 있어 지속적인 변화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1 들어가며

이 추구한 목표²⁾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와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이하 특구 사업) 커뮤니티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 세

- 1) 1기 특구 사업은 2020~2023년에 부산 북구, 광주 서구, 광주 동구, 인천 남동구, 강원 원주, 강원 춘천, 전북 전주, 경북 울진 등 총 8개 지역에서 진행되었고, 현재는 2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기 사업의 세부 성과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 관리(김희성 외, 2023)를 참조하면 된다.
- 2) 특구 사업은 ①개인 및 가족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자원을 동원해 공동체와 지역사회 환경의 지속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커뮤니티 임팩트(Community Impact), ②개별 기관이 단독으로 사업을 기획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기관(사업)·조직 간에 긴밀한 상호작용과 대등한 파트너십을 토대로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집합적 임팩트(Collective Impact), ③지역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민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성과 연대성을 촉진함으로써 자생적 조직화 및 사회적 자본을 구축하는 커뮤니티 리더십(Community Leadership) 등 세 가지 관점을 추구한다(김희성 외, 2023).

가지 개념의 결합이다. 이 중 커뮤니티 임팩트는 세부 요소를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사회서비스 제공,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구성하였는데, 이 사례 분석은 커뮤니티 플랫폼 구축에 관한 것으로, 마을 주민 교류 및 관계 형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공유공간에 관한 것이다.

사람에게 공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곳에 사는가? 그리고 그 공간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주민의 생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구 사업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 수요가 높은 저소득 밀집 지역을 우선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 지역은 고령화는 심각해지고, 1인 가구도 늘어나고, 복지서비스를 받아야 할 주민들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슬럼화되었다. 주민 간 교류가 사라지면서 고립되고 관계가 단절되는 현상도 가져왔다. 그곳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부끄러워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고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뿐할 수만 있다면 떠나고 싶은 인식이 존재했다.

그래서 특구 사업이 추구한 기본 전략 중 하나가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갈 곳이 없으니 할 것이 없고, 할 것이 없으니 교류가 없는 순환 고리가 무기력과 고립을 양산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여서 교류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에게 자부심이 되는 공간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모든 사업 수행 지역은 주민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고,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했다. 그 공간을 주민들에게 자부심이 될 수 있고, 가 보고

싶은 공간으로 설계하였다. 집에만 머물던 사람들이 그 공간으로 나올 수 있게 했고, 함께 배우고 삶을 나누며 상호 관계를 만드는 일을 하고자 하였다.

즉 특구 사업은 이 공간에서 단순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넘어 주민 관계 형성, 여가와 문화 활동, 주민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마을공동체로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것을 추구했다.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함은 물론 새로운 욕구를 개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건강·의료, 복지뿐만 아니라 교육, 여가, 문화, 인문 등 다양한 영역의 욕구를 해소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자기 삶에 대한 존중, 그리고 이웃과 마을을 존중할 수 있는 태도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자 하였다.

주목할 만한 것은 그 공간이 단순히 건물이나 실내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 공간의 범위를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가상의 공간(유튜브, 마을방송 등),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야외공간까지 확대해 적용하였다. 이 공간을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확장하는 거점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특구 사업 1기(2020~2023년) 8개 지역의 복합공유공간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설치·운영되었다. 복지시설 내 공간 재구성, 지역 내 별도의 공간 설치·운영, 도시재생사업 내 복합공유공간 활용, 복지시설이 없는 마을 내 경로당 등을 활용한 거점 공간 운영, 마을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 가상공간 운영 등이 특성으로 드러난다. 이 사례에서는 이 중 주민 간 교류와 소통이 활발하고, 주민의 성장과 역량이 강화되며, 고립된 주민들을 발굴하여 관계를 형성

[표 1]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운영 특화 사례

연번	지자체	사업명
1	부산 북구	복합공유라운지 '담다'
2	광주 동구	복지거점센터 '아따사랑채'
3	광주 서구	복합공유공간 '다가치서로이음터'
4	강원 원주	주민소통공간 '온마을방송국'
5	전북 전주	주민공유공간 '온평'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94.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지도력이 드러난 5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2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사례 분석

가. (부산 북구) 복합공유라운지 '담다'

이 사례는 복지관 내 공간을 재구성하여 주민 간 교류와 성장을 활성화하고 공간의 개념을 가상공간과 야외공간까지 확장하여 운영했다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복합공유공간 '담다'는 영구 임대 단지인 덕천 BMC아파트 주민 욕구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소통·교류 및 자발적 자조모임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것이다. 그렇지만 단순히 저소득 밀집 지역에 주민들이 모이는 공간 하나를 설치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주민들이 모이고 교류하는 물리적 공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단절된 사람들을 연결하기 위한 가상공간에 대한 개념도 적극 도입하였다. 그

래서 명칭도 복합공유라운지 '담다'로 정하고 북카페, 천권도서관, 공유교실, 공유세탁실은 물론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신설했다. 기존에 복지관 1층에 설치된 쉼표카페까지 주민 소통 및 교류의 공간으로 활용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여가, 교육, 문화, 일상생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중 오전 9시~오후 6시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세미나실, 유튜브 스튜디오, 공유교실, 북카페를 지역주민과 단체에 무상으로 대여·대관하여 자조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간별로 살펴보면 공유세탁실은 유상으로 운영 중이지만,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선발하여 월 2회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연계로 '찾아가는 세탁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북카페에는 독서와 더불어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와이파이 존을 조성하였고, 탭을 설치하여 유튜브 및 인터넷 서핑을 무상으로 할 수 있게 하였다. 공유교실은 지역주민 동아리 모임, 지역단체의 정기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무상 대여·대관한다. 이 공간에서도 사회보장특구사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천권도

서관'에는 '큰글도서관'이라는 콘셉트로 고령자들이 활자를 키워 책을 볼 수 있도록 확대경을 비치하였다. 유니버설 디자인을 채택했으며 이동이 가능한 책상을 배치해 독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고령자 맞춤형으로 고령자들이 선호하는 분야(건강, 취미 등)의 도서를 비치하여 독서의 접근성도 높였다.
 쉽표카페에서는 사회보장특구사업의 일환으로

[표 2] (부산 북구) 복합공유라운지 '담다' 사례

□ 사업 배경

-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공유공간 부재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외부활동 감소, 소통 부재에 따른 사회적 관계 단절 및 정서적 고립감 심화, 돌봄 공백 증가 우려

□ 사업 목적

- 공유공간 제공 및 복합문화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기대
- 개인 위생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공간 조성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생활환경 유지 지원
- 지역주민의 여가활동 및 문화 고립감 해소를 위한 공간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사업 대상

- 부산광역시 북구 BMC아파트 거주 지역주민

□ 사업 내용 및 방법

- 복합공유라운지 담다 조성 및 주민 지키미 운영 관리
- 찾아가는 세탁서비스 '최강빨래꾼' 진행
- 가상공간 복지서비스 제공(카카오톡채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등)
- 주민 동아리 주도 콘텐츠 계획 및 제작 활동
- 주민 동아리 조성 및 거점 공간 대여

□ 사업 연계·협력

- 프로그램 홍보 및 연계 관리: 북구청, 덕천1동행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북부지사
- 주민 동아리 활동 협조: BMC행복나눔봉사대, 남산청방송곡, 남산정연극단
- 오프라인 공간 대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외 149건
- 주민 지키미 관리 운영: 부산북구자원봉사센터

□ 주요 성과

- 지역맞춤형 공간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 교류 기회 확대
- 지역주민 동아리 조직화: 공간을 활용한 주민 소통 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연극단, 남산청방송곡 운영
- 신규 공간을 매개로 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및 후원 발굴: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존 공간 개선을 통한 영구 임대 단지(덕천 BMC)의 부정적 인식 감소
- 주민 주도형 콘텐츠 개발로 주민 자발성 향상: 비대면 활동 기반 문화적 소외감 탈피 및 주민 자발성 증가(주민복면가양, 솜씨 뽐내기 등)
- 교류 활동을 통한 주민 사랑방 역할 수행: 기존 조직 및 신규 주민 조직의 교류 활동을 통한 주민 소통을 위한 사랑방 역할 수행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97.

경력 단절 지역주민을 바리스타로 양성하여 직접 쉼표카페를 운영할 수 있게 하였다. 자원봉사로 카페를 주중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쿠키, 마들렌, 해독주스 등을 판매하는데 지역주민의 재방문 비율이 높다. 자유롭게 쉬면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재하는 공간이지만 주민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소통하며 마을 소식을 접하는 유튜브 스튜디오는 유튜브 전담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였다. 대학생으로 구성된 SNS 홍보단이 네이버 블로그(640명), 인스타그램(754명), 카카오톡 채널(516명), 유튜브 채널(304명)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유튜브 채널에서는 사회보장특구사업의 월별 뉴스, 주민쿠팡 등의 소식을 제작하여 알리고 있다. 유튜브 전담 인력은 지역주민들을 모아서 홍보영상 제작 및 지역주민 대상 정기적 영상매체 활용 교육을 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스스로 영상 제작은 물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쉼표카페를 통해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거나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천권도서관을 독서와 대여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점은 매우 의미 있는 접근으로 보인다.

부산 북구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민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서 야외공

간에 주목한 것이다. 덕천 BMC아파트는 영구 임대 단지로 고령자의 입주 비율이 60%가 넘는 초고령 밀집 지역이지만, 단지 내의 놀이터를 비롯한 유휴 공간은 입주민의 특성과 맞지 않았다. 덕천1동 BMC아파트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맞춤형 어린 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개정³⁾을 추진하였고, 부산도시공사와 협의하여 야외공간 활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나. (광주 동구) 복지거점센터 ‘아따사랑채’

이 사례는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을 권역별로 나눠 거점 공간을 설치하는 등 복지서비스와 자원 연계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복지거점센터 ‘아따사랑채’는 복지시설이 없는 선계마을을 권역으로 나눠 복지 중심 거점 공간을 마련했다.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 편의시설과 소통공간을 마련함으로써 마을복지공동체 형성을 도모하였다.

회의 및 활동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무료로 대여하고, 문화교육 프로그램, 무료 공유 나눔, 이동상담소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들과의 접근성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해 왔다.

주목할 점은 지역 특성에 따라 5개 권역을 설정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을 사랑채 공간에서 운영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

3)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6조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 지원) 제①항 6 「공동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노후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정비 및 용도변경」을 추가하였다.

하였다는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1권역에선 동구 푸드마켓(생활용품 및 나눔반찬 지원, 상담실 & 주민 프로그램 공간 운영), 2권역에선 푸른개미다락(생활문화동아리 활동 공간, 청춘마을공작소 운영), 3권역에선 계림1동마을사랑채(공유부엌 및 주민열린공간 활용), 4권역에선 산수1동마을사랑채(마을예술 강연 및 체험공간, 마을영화관 운영), 5권역에선 산수1동소통경로당(1인 가구 소통 모임

[표 3] (광주 동구) 복지거점센터 ‘아따사랑채’ 사례

□ 사업 배경

- 복지관 등 시설이 부존재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이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는 소통 장소 없음
- 높은 1인 가구 비율에 따라 타인과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음

□ 사업 목적

- 5개 권역별 복지 중심 거점을 마련하여 거점별 마을복지공동체 형성
- 권역별 인구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복지사업 수행
-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및 소통공간 마련

□ 사업 대상

- 선계마을 주민 누구나

□ 사업 내용 및 방법

- 동구푸드마켓(1권역): 생활용품 및 나눔반찬 지원, 상담실 & 주민 프로그램 공간 운영
- 푸른개미다락(2권역): 생활문화동아리 활동 공간, 청춘마을공작소 운영
- 계림1동마을사랑채(3권역): 공유부엌 및 주민열린공간 활용
- 산수1동마을사랑채(4권역): 마을예술 강연 및 체험공간, 마을영화관 운영
- 산수1동소통경로당(5권역): 1인 가구 소통모임 공간, 건강체크 장비 비치

□ 사업 연계·협력

- 선계마을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개 기관 연계 협력
- 권역별 특화사업 지원: 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빛고을종합사회복지관, 동구정신건강복지센터, 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영상미디어센터, 국제커리어센터, 동구시니어클럽
- 운영 지원: 한국마사회광주지사, 새마을금고협회, 세종요양병원, 자비신행회, 광주은행
- 지역사회 협력·연계: 산수1동·계림1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자치회,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아따복지공동체위원회, 광주사회복지협의회, 동구자원봉사센터, 동부경찰서

□ 주요 성과

- 주민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공간 제공: 건강장비 구축 및 활용, 주민 동아리 활동
- 주민 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마을복지사업 운영을 통한 주민소통 확대
- 찾아가는복지상담서비스(일자리, 법률 등), 무료 공구 대여 등을 통한 복지 지원
- 지방소멸기금 예산 확보 및 협력기관 프로그램 지속 추진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499.

공간, 건강체크 장비 비치)을 운영하였다.

마을 내 공간이 설치되었다고 하더라도 설치 자체가 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담보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 마을사랑채와 경로당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지역주민과의 교류 장소로 사랑채와 복지거점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아따사랑채’를 복지센터로 운영하는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주민 간 교류와 휴식하는 공간에만 머물지 않도록 하고,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간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운영하였다. 다양한 장비를 통한 서비스 제공,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 후원, 푸드마켓 운영 등을 통해 ‘와서 도움이 되는 공간’으로 인식하여 집에만 머물지 않고 나오게 하였다. 그렇게 이 공간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문화 프로그램, 원데이 수업, 공작소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들끼리의 관계 형성을 통해 동아리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확대하는 전략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20개 기관 연계·협력을 이끌어 내었고, 주민 동아리를 활성화시켰다.

다. (광주 서구) 복합공유공간 ‘다가치서로이음터’

이 사례는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이지만, 해당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어 설치된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여 동아리를 비롯한 다양한 주민 교

류 활동, 다양한 주민 모임 간 공간 공유를 활발히 한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광주 서구에서는 일반주거지역 중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농성1동 내에 복합공유공간 ‘다가치서로이음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돼 상시 운영하는 공간을 마련해 주민 동아리 활동, 주민 제안 프로그램 추진, 무인택배함 설치 등을 지원함으로써 주민 관계를 향상하고 응집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공간은 다 같이 이용하는 공간, 서로 이어 주는 공간으로 기능했다. 특정 주체가 독점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단체가 원칙을 가지고 공유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 조직 및 단체가 공간을 빌릴 때 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출입 키를 개별 등록하여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부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센터에서 키를 받아 사용하게 했다. 또한 다양한 공모사업, 돌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 및 강의를 지원하는 활동도 수행하였다. 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상록벚꽃마을카페’는 오전 10시~오후 4시는 영업 시간이므로 그 시간대에는 대관을 제한하고, 토요일, 공휴일, 저녁 시간을 주민 조직이나 단체가 공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주택가에서도 택배 수령이 원활하고 편리하도록 무인택배함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성1동에 다양한 주민 동아리와 단체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지원하는 인프라는 부족했고, 모여서

회의하고 자치 프로그램 및 마을 행사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모자랐다. 주민들이 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면서 협동조합 주사무소, 회의 상설체 운영, 마을 영화관 등을 통한 주민들 간의 관계 맺기가 원활히 진행되었다.

그동안 동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해 지역 내 공간이 있더라도 주민들이 쉽게 활용하기 어렵거나 운영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 접근하기가 어려웠다. 공간을 정기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출입 키를 제공하는 등 공간 사용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였

[표 4] (광주 서구) 복합공유공간 ‘다가치서로이음터’ 사례

□ 사업 배경

- 다양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의 부재로 공동체 활동에 제한 발생
- 도시재생사업으로 커뮤니티센터를 건축하고 있으나 다양한 사유로 연기되고 있는 상황

□ 사업 목적

- 주민 동아리의 자유로운 활동 지원
-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활동 기반 마련

□ 사업 대상

- 농성1동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조직
- 단체 및 농성1동 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및 기관

□ 사업 내용 및 방법

- 주민 동아리 공간 지원: 공간 활용 신청서를 사전에 접수, 검토, 회신하여 정기적 활동이 있는 단체에 대해 출입 키를 개별 등록하여 자유로운 활동 보장, 부정기 단체는 지원센터 방문 후 공간 활용 지원
- 주민 교육 지원: 다양한 주민 제안 공모사업, 돌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 강사 및 강의 지원
- 공유공간 활용: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 중인 ‘상록벚꽃마을카페’ 운영 시간에는 대관을 제한하고, 토요일, 공휴일, 저녁 시간에 공유공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 무인택배함 설치 운영: 마을 공유공간 앞에 ‘무인택배함’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마을 카페 방문 유도

□ 사업 연계·협력

- 인프라의 공유: 키오스크 강와-장애인, 노인 대상 활용 교육
- 인허가를 위한 부서 간 협력: 복지정책과, 건설과, 식품위생과, 세무1과, 도시재생과

□ 주요 성과

- 총 148회의 공간 대여: 협동조합 마을상점 운영 연습, 기관 회의, 주민 동아리 교육 연습(양곡떡반, 미디어반, 우쿨렐레 등) 등
- 상시 주민 활동이 가능한 하드웨어 구축: 공공기관 운영 시간에 맞추지 않는 자유로운 주민 활동 시간 보장, 협동조합 주사무소 운영, 회의체 상설 운영
- 마을 영화관 및 주민 모임 활성화로 주민 관계 향상 및 응집력 강화
-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1·3세대 교류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아동과 주민 간 소통 프로그램, 발달장애아동과 부모 체험 프로그램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프로그램 제안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1.

다. 주민 동아리들은 일정한 원칙하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합공유공간으로 제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업 운영 기간 동안 총 148회에 걸친 주민 조직 및 단체의 공간 대여, 3개 주민 동아리 운영, 마을 영화관 운영 등 주민들이 공유하고 운영하는 공간, 주민들끼리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라. (강원 원주) 주민소통공간 ‘온마을방송국’

이 사례는 복지관 내 공간을 재구성하고 아울러 마을 미디어를 활용한 주민 간 소통과 교류, 주민 역량을 기반으로 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강원도 원주의 주민소통공간 ‘온마을방송국’은 가상공간인 온라인 공간을 통한 주민 소통과 정보 공유의 장을 추구한 것이 특색이다. 영구 임대 단지라는 지역적 특색, 즉 음주문화, 싸움과 욕설, 노상 방뇨 등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불편 및 사회적 낙인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긍정적 마을 문화 콘텐츠를 생산·전파할 수 있는 공간인 ‘온마을방송국’을 만들었다. 지역주민이 라디오 방송을 제작하여 송출하고, 마을신문을 발행하여 배포함으로써 주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였고, 마을공동체의 긍정적 문화를 형성하도록 지원하였다.

주민 소통 및 여가문화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서

복지관 내의 공간을 재구성하여 공유 플랫폼인 마을방송국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북카페나 쉼터 등과 같은 공간과는 다른 접근이다. 마을 미디어인 라디오, 마을신문 운영을 통해 주민들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타 지역과 대비된다. 복지관 내 방송 부스, 편집 회의실, 라디오 송출, 공개 라디오 운영,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고, 주 2회 이상 라디오 방송 및 유튜브로 송출하였다. 라디오 DJ를 모집하여 양성하고, 주민을 게스트·패널로 활용했으며, 명료동 내 전문가를 섭외하여 정보를 제공하였다.

마을신문도 주 1회 발행하였다. 주민기자를 모집하여 양성 후 자체 편집회의를 통해 정기간행물을 발행하였다.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았는데,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초기 창업 육성지원 과정에 선정되었다. 취약계층 밀집 지역 문화활동 촉진과 방송 시스템 임대사업 및 아카이빙을 통한 경제적 수익 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복합공유공간을 설치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거동이 가능한 사람,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주로 활용한다. 방송에 참여하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집에만 머무는 사람,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가진 사람들은 참여가 쉽지 않다. 그래서 마을에서 벌어지는 일, 궁금해하는 일, 유용한 정보를 담은 방송을 통해 이웃과 마을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특구 사업의 다양

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기능으로 '온마을방송국'을 활용하였다.

이 사례는 주민들이 직접 DJ로 참여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마을 문화를 정착시키고,

문화 취약계층의 문화복지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주민이 직접 만들어 가는 마을 미디어 운영으로 예

비사회적기업에 선정되어 향후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표 5] (강원 원주) 주민소통공간 '온마을방송국' 사례

□ 사업 배경

- 영구 임대 단지 특유의 음주문화, 싸움과 욕설, 노상방뇨 등 이웃을 배려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및 사회적 낙인 문제가 큼

□ 사업 목적

- 영구 임대 단지가 가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마을공동체의 긍정적 문화 형성
-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 발전을 위한 주체가 되어 신문, 방송을 구성하고 운영, 직접적인 마을공동체 문화 회복의 주체가 되도록 함

□ 사업 대상

- 원주시 명륜2동 지역주민 누구나

□ 사업 내용 및 방법

- 온마을신문: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신문 제작, 친환경용지 사용, 함께하는 삶 고민, 마을에서 잘 살아가기 위한 고민 던지기
- 마을 라디오: 마을 내 스피커 송출, 문화가 흐르는 마을, 지역주민이 직접 DJ, 기술자가 되어 전하는 소식, 게스트 참여로 다양한 이웃 소개,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소통, 편집 방송 반영
- 주민 교육 운영: 스마트폰 기초교육, 영상제작 교육, 미디어 소외계층 완화, 미디어 역량 강화, 예비활동가 양성
- 온마을 노래자랑 운영
- 온마을머니: 지역 업체 협찬, 지역주민 홍보

□ 사업 연계·협력

- 원주영상미디어센터 MOU 체결
- 한라대학교 영상제작학과 프리즘 동아리

□ 주요 성과

- 온마을방송국 지역주민 참여의 문화 콘텐츠 제작 및 주민 소통 확대
 - 유튜브 구독자 873명, 조회수 6만 8955회, 시청 시간 4480시간
 - 마을 라디오(2023년 5월까지): 실시간 방송 324회, 편집영상 130회
 - 온마을신문 발행(2023년 5월까지): 25회, 2만 5800부
 - 협산업체 후원금(2022년): 474만 5000원
 - 노래자랑 참여자: 100명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3.

마. (전북 전주) 주민공유공간 ‘온평’

이 사례는 지역 내 복지관이 있지만, 복지관 밖에 별도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환경’이라는 마을 이슈를 기반으로 지역 문제 해결은 물론 고립된 가구 발굴과 관계 형성을

추구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는 영구 임대 단지가 있다. 평화복지관 내에 주민공유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지역 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주민공유공간 ‘온평’을 마련하였다. ‘온평’은 ‘온 동네 평화마을’이라는 의미로, 주민 조직 회의 및 프로그램 운영, 주민 공

[표 6] (전북 전주) 주민공유공간 ‘온평’ 사례

□ 사업 배경

-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공간의 부족으로 공동체 활동에 제한 발생
- 주민들의 삶과 가까운 곳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주민들만의 공간 필요

□ 사업 목적

- 평화동 주민, 평화동의 마을공동체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점 공간 마련
- 제로웨이스트숍 및 제로웨이스트체험존, 라면가게 등 지역 이슈에 맞는 공간으로 활용하며 지역주민들의 공유공간으로 자리매김

□ 사업 대상

- 평화동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및 평화동 주민
- 단체 및 평화동 지역주민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단체 및 기관

□ 사업 내용 및 방법

- 주민 동아리 공간 지원: 자율 동아리 활동 모집 및 제반 사항 지원(감사비 및 재료비 등)
- 주민 교육 지원: 주민 공동체 교육, 고립 가구 및 1인 가구 지원 교육, 자원 순환 등
- 제로웨이스트체험존 및 소품, 고립 가구 발굴 ‘라면가게’ 운영, 자원 순환 거점 기관: 사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소이자 거점 기관으로 활동
- 무인빨래방 설치 운영: 마을 공유공간에 ‘무인빨래방’을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이고 ‘온평’ 방문 유도

□ 사업 연계·협력

- 인프라의 공유: 키오스크 강약-장애인, 노인 대상 활용 교육, 전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협업을 통한 자원 수거 거점 기관으로 활용
- 인허가를 위한 부서 간 협력: 생활복지과, 노인복지과, 청소지원과 등과의 협업을 통한 온평공간 유지비 및 네뜨론 설치

□ 주요 성과

- 총 1만 2000명에게 공간 대여: 기관회의, 기관 방문, 주민 동아리 교육연습(리폼교실, 우쿨렐레, 장구, 공예, 자서전, 그림) 등
- 마을 빨래방 및 주민 모임 활성화로 주민 관계 향상 및 응집력 강화
- 주민 주도의 다양한 프로그램 제안: 병뚜껑 자원 지도, 평화퀴즈온더블록, 마음산책, 용기 내 챌린지, 태양이구운계란, 온마을 우체부, 사랑의 인사 자판기 등

출처: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김희성 외, 202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505.

유 빨래방 및 주방 운영,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 등을 하였다. 주민 주도로 관리·운영함으로써 상호 돌봄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지역주민이나 자생단체, 주민 동아리가 이 공간을 대여해 활용하도록 했는데, 다양한 단체에서 회의,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공유 빨래방, 공유 주방 등 다양도로 활용하고 있다. 이 사례는 공간을 자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공간 사용에 대한 규칙을 주민 스스로 정하여 적용하는 등 주민 주도적 운영의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온평은 ‘환경’이라는 매개체를 기반으로 제로웨이스트체험존, 순환자원 회수 로봇 네프론 운영, 재활용품리폼단, 공예업사이클링, 커피박업사이클링 등의 활동을 하도록 이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과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 내 쓰레기 투기 문제가 많고,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도 버려지는 점이 있어서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설치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페트병, 캔을 넣으면 10원씩 적립되어 주민들이 재활용 분리배출도 하고 경제적 이익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고립 가구 발굴과 참여를 위한 공간으로도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외부활동이 거의 없는 고립 가구에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동기를 유발하였고, 이들이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 나온 뒤 주민공유공간에서 쉬어 가고 마음이음단과 소통하며 실제 참여하기도 하였다. 즉 순환자원 회수 로봇을 활용한 친환경 인식 개선 및 고립 가구의 외부

활동을 유인하게 되었다.

‘온평’은 경미한 우울증과 무기력한 중장년층 및 고립 가구를 발굴하여 참여하게 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매주 화요일 죽 나눔을 하고, 공유 빨래방, 공유 주방을 운영하여 빨래 및 생활안전 문제를 지원하였다.

주민공유공간 ‘온평’은 ‘우리 동네에도 온평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했다. 이 공간을 자랑거리로 여기며 애정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소위 ‘못사는 동네’,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는 주민 스스로의 낙인에서 벗어나 ‘우리 동네에도 자랑할 거리가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다주었다. 이 공간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이 자체 제정한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속에서 주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은 물론 친환경 인식 개선, 고립 가구의 외부활동 유인 등 공간 활용 성과를 보이고 있다.

3 나가며

사람은 일정 부분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어떤 환경 속에 있는가는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복지 수요가 높은 저소득 밀집 지역은 복지 기반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 스스로 낙인을 찍으며 무기력을 가지고 있었다. 주민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도 모자랐다.

그래서 복합공유공간이라는 물리적으로 모일 수

있는 실내공간을 설치하는 것이 중요했다.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주민들이 소통하는 공간, 배우는 공간, 그리고 고립된 주민을 발굴하고 주민 간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광주 동구는 복지시설이 없는 마을의 주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다양한 단체 등의 자원을 발굴하고 연계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교육 욕구, 생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배움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 간의 관계 형성, 동아리로 발전시켰다. 광주 서구는 주민 동아리를 조직하여 자체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문화 및 여가 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였다. 자체 규칙을 만들어 지역 내 다양한 단체가 공간을 공유하여 활용하게 했다. 전북 전주시는 주민들이 지역이 가진 문제와 이슈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주민들이 모여서 지역 이슈를 선정하여 사업을 계획하였다. 자원순환, 기후위기와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역 내 고독한 삶을 살아가는 고립된 주민을 돕기 위한 활동,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일상생활 적응력을 높이는 활동도 전개되었다. 이곳도 주민들이 자체적인 규칙을 정하여 주도적으로 운영하였다.

5개 지역의 복합공유공간은 지역 자원을 다양하게 발굴하고 연계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지역 내 대학 자원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영상, 문화단체 등과도 교류가 시작되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복지단체 등은 물론 정신건강 관련 기관, 병원, 시

니어클럽, 사회적경제 영역의 단체 등과도 다양한 활동이 진행되는 등 지역 자원 연계망도 매우 활발하게 확대되었다.

특구 사업에서 주목할 만한 또 하나는 공간에 대한 개념을 확장한 것이다. 제1기 특구 사업은 코로나19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전 국민에게 가급적 모임을 제한하라는 사회적 메시지가 있었다. 이는 그렇지 않아도 단절되고 고립된 주민들을 더욱 고립되게 만들기도 했다. 그래서 고립된 삶, 그리고 외부활동을 단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공간의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었다.

코로나19 시기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단절 문제가 있고, 스스로 고립되고 관계 형성의 계기마저 미흡한 상황에서 가상공간을 통해 주민들끼리 소통하게 했다. 부산 북구와 강원 원주에서는 유튜브 스튜디오, 마을방송국 등 마을 미디어를 통해 주민들이 서로 연결되는 공간을 만들어 지역 변화를 이끌어 냈다. 지역 내 자랑거리, 주민 복면가왕, 노래자랑, 요리 실력 등 스스로 뽐낼 수 있는 활동의 장, 그리고 지역 문제를 고민하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였고, 지역 내 많은 주민이 교류하는 통로가 되었다. 특히 강원 원주는 마을방송국, 마을신문을 주민 스스로 제작하고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을 통해 자립 기반을 갖추었다.

주민들은 집에서만 살지 않는다. 그들은 마을에서도 생활한다. 고립되고 단절된 채 집에서만 머물지 않고 밖으로 나와서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야외

공간 변화에 주목했다. 주민들이 어우러져 함께 놀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디자인하는 시도를 펼쳤다. 부산 북구는 영구 임대 단지 내 야외 공용공간(체육시설, 놀이터 등)에 주목했다. 주민 대부분이 노인인 영구 임대 단지에 주택법 문제로 인해 노인들을 위한 공간은 부족한 반면 어린이 시설은 반드시 설치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고자 했고, 주택법과 조례 개정에 대한 노력을 했다. 이를 위해 부산 북구는 부산광역시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을 이뤄 냈다. 부산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영구 임대 단지 내에 어르신 놀이터 등 주민 특성에 맞는 공간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구 사업은 복합공유공간을 통해 주민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다양한 자원의 연계와 개발을 하며, 마을 자산으로서의 커뮤니티 공간, 즉 주민들이 모여서 배우고 소통하는 공간, 그리고 자랑할 만한 공간이 있다는 자부심, 그 공간에 대해 주민들의 애정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노력들이 위의 사례와 같이 일정한 성과를 내게 했다.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다.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빈집 증가에 따른 빈집 활용의 다양한 사례가 축적되고, 도시재생사업을 펼치면서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저소득 밀집 지역인 영구 임대 단지는 오히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에 있는 영구 임대 단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치한 곳과 지방도시공사가 설치한 곳으로 나뉘지

는데, 지방도시공사가 설치한 영구 임대 단지는 그 지자체의 예산 편성, 조례 개정 등을 통해 공간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기능을 보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치한 영구 임대 단지에 대해서는 지원과 관리의 주체가 모호하고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중앙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지방정부에 관리의 책임을 넘기고 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주택공사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지원을 보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구 임대 단지는 단지 내 빈 상가 증가, 복지관 시설 노후, 5층 이하 아파트 엘리베이터 미설치 문제, 인구 구성에 맞지 않는 편의시설(놀이터, 어린이집 등) 재배치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모호하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은 물론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 있다. ■

참고문헌

- 김희성, 김진희, 어유경, 임덕영, 엄태영, 홍재봉, 주은수, 손호성, 홍민지 (2021).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분석 및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성, 김진희, 이주민, 김가희, 임덕영, 주보혜, 홍재봉, 엄태영, 채현탁, 주은수, 어유경, 손호성. (2023).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컨설팅 및 성과관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부산시. (2022). **부산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10. 25.).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연구진 회의자료**.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Community-Led Multi-Functional Shared Spaces

Hong, Jae-Bong

(Busan Lifeline)

Our lives are affected by our living spaces. Many residents of slum communities, having nowhere nearby to go, often find themselves isolated from social connections and cut off from others, ashamed of their neighborhoods and wishing to be elsewhere.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in its first round, involved building and operating “multi-functional shared spaces” where residents of underprivileged communities can come together and connect with each other—something they can be proud of having. These spaces serve as community assets, owned by the residents, encompassing not only physical indoor areas but also virtual spaces such as YouTube, as well as outdoor areas where residents can gather and connect. The shared spaces have been used in earnest as places for identifying households in need and providing them with necessary social services, linking various organizations and resources, building inter-community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and learning and engaging in activities for independent living. This article argues, however, that despite all these community efforts, limitations still remain that call for continued support from the central government.